

날짜 2024. 12. 9.(월)

## 한국남부발전,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선언」으로 경영진 내부통제 확립 의지 천명

-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KOSPO 윤리 히어로” 시상도 함께해 -

- 한국남부발전 (주) (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9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선언」을 선포함과 동시에 ‘KOSPO 내부통제책임자 임명식’ 및 ‘KOSPO 윤리히어로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최근의 공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적극 반영하여 김준동 신임 사장과 김명수 상임감사위원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사되었으며, 본사 및 전국 빛드림본부의 조직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김준동 사장과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이 「윤리경영-내부통제 바로세움 실천선언」을 제창하며 시작했다.
- 이어진 ‘KOSPO 윤리 히어로’ 시상식을 통해 김준동 사장은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발된 최우수 부서장 총 18명에게 사내 윤리인권 존중 문화 정착에 앞장선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귀감이 될 것을 당부하였으며, 직접 전 처실장 및 빛드림본부장을 ‘내부통제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조하였다.
- 김준동 사장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인식 대신 전 직원이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업무절차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면서 “특히 직원들이 직접 뽑은 전사 ‘윤리히어로’ 18명을 모범으로 삼아 청렴하고 공정한 남부발전으로 모범이 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은 “한국남부발전의 상임감사위원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청렴윤리의식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인 내부통제가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준법정신에 기반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최우선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우측에서 6번째)이 강태길 ESG기획관리처장(우측에서 5번째)을 포함해 본사 처실장을 ‘내부통제책임자’로,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우측에서 7번째)이 김경민 감사실장(좌측에서 7번째)을 ‘내부통제감사인’으로 임명하고 내부통제 의지를 다지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당 부서	미디어홍보실	담당자	대리	정성훈	(070-7713-8172)
	준법경영부	담당자	차장	강지혜	(070-7713-8124)